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Since 1908-5-1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후 제4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주의 전에 나올 때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39. 주 은혜를 받으러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한낮의 밝음도 한밤의 어둠도 모두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때로 짙은 구름 아래 선 것처럼 마음이 답답해지고, 희망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것이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저물지 않는 빛이시고, 마르지 않는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잡다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의 삶에 질서를 잡아주실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주님, 옹졸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이 지긋지긋한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속절없이 흘려보내지 말게 해주시고,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가려들으며 하늘의 리듬을 따라 춤추며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미가7:8 …… 인도자

♠ 교 독 문 …… 3. 시편4편 …… 다함께

♠ 영 광 송 …… 1. 만복의 근원 …… 다함께

대표기도 …… Ⅰ. 김태환 선생 Ⅱ. 한상익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송 …… 302. 주님께 귀한 것 드려 …… 다함께

성경봉독 …… Ⅰ. 갈6:3-4 …… 인도자
Ⅱ. 전11:9-12:2 김용진 권사

찬 양 …… 찬양대

말 씀 …… **Ⅰ. 조금만 더 낮추어요** …… 김재흥 목사
Ⅱ.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에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376. 내 평생 소원 이것뿐 …… 다함께

헌금봉헌 …… 다함께

♠ 봉 헌 송 ……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결단의 찬송 ……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지난날의 과오와 허물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 힘겹더라도 기꺼이 생명과 평화의 길을 택하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새로운 소명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인해 울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웃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지기 위해 몸을 낮추겠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들 속에 주님의 숨결을 불어 넣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제2여선교회 주최예배	7월 기도의 밤
말씀 : 장영숙 전도사	인도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이성운 전도사 김기석 목사	문영혜 집사 장영숙 전도사	인도자 노순옥 권사

7월							
	영접위원	김철수	김인걸	홍순구	유영남	이영란	이증자
	헌금위원	한상익	김중수	김근종	배삼순	최숙화	박효선

▣ 믿/음/으/로/읽/는/글/

설교자의 고뇌

인간과 사건들에 대해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기 위해 자리를 잡고 앉을 때 나는 비판적이 되고 신중해진다. 나는 강대상에 설 때 상상력을 발휘하려고 애쓰고, 어떤 때는 일종의 광기에 사로잡히는데—그럴 때면 나의 말은 과장되고 교조주의적이 된다—대체 그 까닭이 뭘까? 어쩌면 이러한 기술적 변화는 청중들을 감동시키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설교를 차갑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서 비롯된 무감각 때문에 청중들은 쉽사리 감동하지 않는다. 감정에 호소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감동은 사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아니라 이상적 가치들과 만나는 데서 일어난다. 그렇다고 하여 내가 비판적 방법을 강대상에서 아주 몰아내려는 것은 아니다. 사실 내게 호감을 갖고 있는 비평자들은 내가 좋은 설교자가 되기에는 너무 비판적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나는 늘 감정적이지는 않다. 그런데도 연구할 때의 나의 기질과 설교할 때의 나의 영혼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어쩌면 그래야 마땅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학문 연구가 모든 것의 상대성을 드러내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것이 지나치게 동떨어진 것이 되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설교가 상대성의 바다에 가라앉아 가는 학생들을 건져내게 하자. 하지만 각각의 입장에 타당성이 있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진리와 가치에는 본질적으로 절대적인 부분이 있고 그것은 선포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의 한 학자는 말했다. “모든 웅변은 절반의 진실 위에 서 있다.” 사람들이 웅변가의 말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적당히 에누리해서 듣는 것은 그 때문이다. 다른 한편 웅변은 시간과 환경의 상대성으로부터 구별된 진리를 보고—그것이 비록 일시적이라 해도— 그것을 절대성의 빛 속으로 고양시키는 시적 은사의 결실이다.

나는 강대상과 연단에서의 과장의 경향은 청중의 규모에 따라 확대된다는 사실을 잘 안다. 교인수가 늘어나면서 나는 말을 절제하지 않고 있다. 좋으신 주님께서 나를 대중적인 설교자가 되지 않도록 구해주시기를

바란다. 어느 날 장로님 한 분이 내게 물었다. “목사님의 저녁 설교가 낮 설교에 비해 비관적인 색조를 띠는 까닭이 뭡니까?” 나는 그분이 인생의 문제들을 분석하는 일에 자신들이 더 비판적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는 장로님께 낮에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려 하고 저녁에는 가르치려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설교의 의도 못지않게 주변상황도 메시지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회중으로 가득 찬 교회당은 내게 용맹한 이들과 함께 주님의 전투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절반쯤 빈 교회당은 기독교가 이교도 세계에서 소수자 운동으로 전락했음을, 패배로부터 승리를 낚아챌 때만 승리를 거둘 수 있음을 즉각적으로 드러내 보여준다.(1922)

–라인홀드 니버, <<어느 길들여진 냉소주의자의 노트>> 중에서

제 어머니는 “큰 신세를 졌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에 대한 의존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이겠지요.

물론 ‘자급자족’ 하겠다는 생각에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자급자족’이란 환상일 뿐이며, 머지않아 그 환상이 깨어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부모님이 없었다면, 선생님이 없었다면, 그리고 친구가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적들까지도 우리 모습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만들어진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언제이건, 때가 되면 삶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줍니다. 병들었을 때일 수도 있고, 인간 관계에서 좌절했을 때, 갑작스럽게 근친을 여의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삶은 어느 순간, 우리를 놀라게 하며 찾아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스태니슬라우스 케네디, <<영혼의 정원>> 중에서

▣ 마/음/으/로/읽/는/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믿으면서도
한순간 불평이 마음 한 모서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나를 왜 이리 대우하시냐고 쫑알쫑알 지지배배 조목조목 따집니다.
원망의 마음, 억울한 감정이 눈덩이처럼 커지더니
순식간에 온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 내 믿음의 수준을 확인하는 순간,
나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마귀가 쾌재를 부르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주의 손길 내 영혼 붙드시니 다시금 일어나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으로, 소리내어 범죄할까 두려워 불평하는 입술을 손으로 막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던 나의 창을 엽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모든 창문을 닫고, 사람에게 향하던 모든 기대를 접고
주님을 향해서만 내 영혼 조용히 창을 엽니다.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세어 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셨던 과분한 은혜를 되새김질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갈망합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감사 찬양임을 기억합니다.
나를 업그레이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노래합니다.

— 조금엽(방송인)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정오 장민숙 박옥식 박병선 방문성 박혜경 김인걸
문영혜 권혁순 박혜경 정현주 안종일 구명자 김준호 곽혜자 이선림
오진훈 노순옥 박규석 박경선 장영숙 박애순 박경원 조문규 진정숙
임 영 정경례 이유선 방극숙 박영희 방 민 김지윤 김지호 김민주
고광송 이춘희 김애경 박성수 맹은선 김재흥 최희영 최미선 안정숙

월정헌금:
하정석 이명희 윤성종 김윤정 정미경 조항범 오현정 유증희 이재문
이동천 황경순 왕수명 이소순 이정은 서정순 이경남 백숙현 김승현
김수진 최철수 곽권희 박범희 박미영 류건형 김성자 박순성

감사헌금:
한상익 문금석 박창운 허정윤 임종우 김윤정 박정숙 김애경 박성수
오진훈 노순옥 김용길 최영혜 김현진 조항미 무명2

생일감사헌금: 윤석철 강인식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홍 순 덕	정 두 리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정 경 례	박 홍 엽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진 정 애	정 진 경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김 명 순	문 영 혜
갈 릴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박 옥 순	박 옥 순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문 복 순	김 경 수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김 재 광	이 기 분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김 금 순	이 순 정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구 성 실	최 종 원
가버나움	구 명 자	안 홍 숙	정 현 주	오 현 정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임 수 연	정 영 선
갈라디아	송 양 진	유 경 순	김 명 희	박 옥 식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야 외	유 혜 경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박 혜 경	임 창 선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냉난방헌금 :** 예배 중에 냉난방비 헌금을 봉헌합니다.
2. **오후집회 :** 제2여선교회 주최예배입니다.
3. **청년회 :** 오후 1시 30분에 청년부실에서 모입니다. <십계명>을 중심으로 우리 삶의 근본을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4. **기도의 밤 :** 7월 기도의 밤이 5일(수)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찬양과 기도를 통해 심령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5. **봉사 :** 종교 급식 봉사 - 5일(수) 오전 11시 15분
   애니아의 집 목욕 봉사 - 7일(금) 12시 30분
6. **계삭회 :** 중구용산지방 여선교회 여름모임이 4일(화) 오전 10시 만리현교회에서 열립니다.
7. **교역자산상기도회 :** 중구용산지방 교역자들의 산상기도회가 3일부터 5일까지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에서 열립니다.
8. **참빛찬양대 :** 참빛찬양대가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다음 주일(9일) 오후 2시에 드립니다.
9. **신앙실천 :** 자칫하면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하루도 거르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 식당 봉사 : 고린도 속

* 헌화 : 최윤희 집사 (아들 생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4: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